코로나19 여파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

전북소상공광역지원센터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 호응
전북대 · 한옥마을 상권 온라인 판매 기반 조성 지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는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전주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시장에 발맞춰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기반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센터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본 사업을 통해 도내 263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홍보영상 촬영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8개 업체가 홍보영상 촬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으며, 한옥마을 인근 상점에서는 사진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등 13건을 지원받았다.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참여한 업체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상인회의 이국 상인회장은 "이번 사업으로 대학로에 설치한 디지털 사이니지 및 전대로 상점가 공식 SNS에 퀄리티 높은 홍보 사진과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추후 새로운 콘텐츠와 연계하여 상점가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본 사업에 참여한 천년의아침의 양희정 대표는 "코로나로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 주변 상권이 어렵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경진원 이현웅 원장은 "코로나19 4차 대확산에 도내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진원과 함께 온라인 판매의 기반을 구축하여 비대면 시대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더 좋은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진원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경영개선교육,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상공인콜센터(☎1588-07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4분기 경영전략회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1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임원 및 영업점장, 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서한국 은행장은 회의를 통해 3분기 경영 · 영업성과 및 하반기 경영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며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상 기자

인력양성 운영 현황 점검 ·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전북인자위, 스킬업 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21일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에서 '2021년 제3차 스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력양성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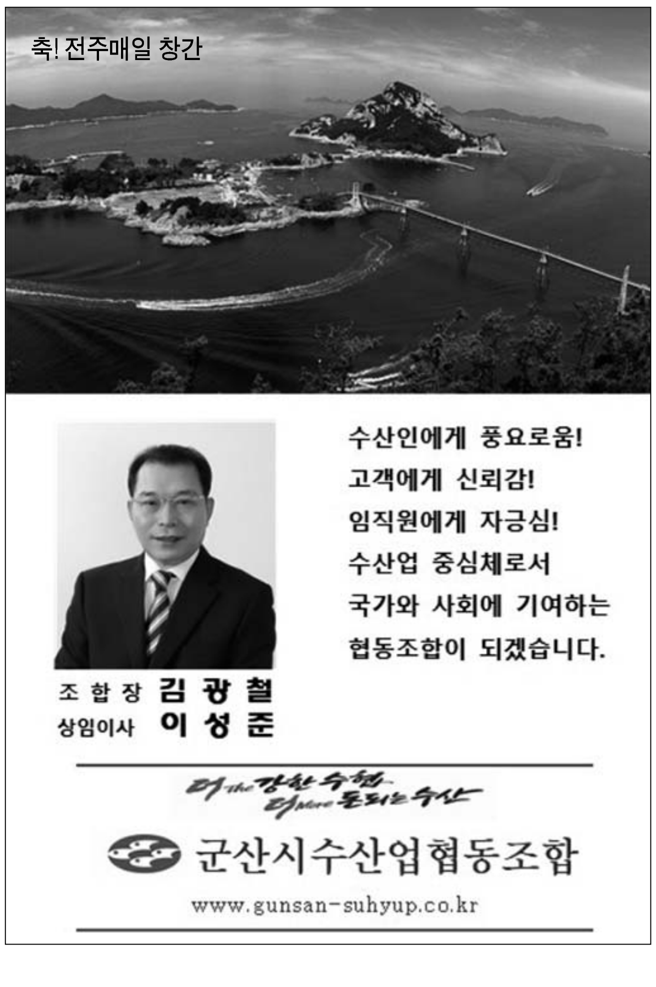
이번 2021년 제3차 스킬업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김제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3개 공동훈련센터(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캡틱종합기술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1년도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 현황과 훈련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진행됐으며, 2022년도 공동훈련센터의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인자위는 올해 3개의 구직자 훈련 과정에서 60명, 61개의 재직자 향상 과정에서 2043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며, 10월 현재 기준으로 2,071명의 훈련생이 참여하고 계획인원 총 2,103명중 9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북인자위는 올해 총 1019개 사업체의 인사부서장 및 현업기술부서장을 대상으로 '2021년 전북지역 훈련 수요조사'와 관련해 전북지역의 특성 및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을 위해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본 조사를 통해 전북지역에 미스매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인자위 윤방섭 공동위원장은 "전북지역의 고용 대책이 시급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집체훈련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교육훈련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특구재단, 대상 · 하림과 협업할 혁신기업 모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재단)은 대상㈜, ㈜하림과 함께, '특구기업 & 대 · 중견기업 협업이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농생명 분야 특구기업과, 국내 대표 농식품 기업인 대상㈜, ㈜하림과의 비즈니스 협업을 연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나갈 성장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분야는 대상㈜, ㈜하림의 사업분야와 관련된 신제품 · 신사업 발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공동 사업화 프로젝트, ESG 실현 등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모든 분야다.

접수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 행사 참가기업을 선정하고, 11월 중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기업IR 및 비즈니스 미팅을 겸한 '협업이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가기업들은 자사의 기술, 제품, 사업모델 및 협업 아이디어를 소개(PT)하고, 공동연구개발, 투자, 기술제휴, 구매연계 등 다양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11월 8일까지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특구재단 이메일(partner@innopolis.or.kr)로 참여 신청서와 협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샤인머스캣도 라이브커머스로

전북농협, 오늘 네이버 쇼핑 통해 판매

전라북도(도지자 송하진)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을 위해 오늘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쇼핑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생방송으로 샤인머스캣을 판매한다.

방송시간 동안 춘향애인 샤인머스캣 2kg(3송이) 상품을 시중가 대비 27% 저렴한 가격인 24,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택배비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방송은 농협전북본부 8층 온라인지역센터에서 진행되며, 주문 받은 후 에어캡에 포장하여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택배 발송할 예정이다.

샤인머스캣은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포도 품종 가운데 당도가 가장 높고, 아삭아삭한 식감과 은은히 풍기는 망고향이 특징이다. '춘향애인' 샤인머스캣은 GAP 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캠벨포도 우수산지로 유명한 남원 지리산 아영면 일대에서 생산하고 지리산농협에서 공동선별하여 최소 16브릭스 이상 상품만을 출하하고 있어 당도 또한 우수하다.

정재호 본부장은 "라이브커머스의 장점인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제품의 장점을 충분하게 안내하고,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에 맞는 지역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가에는 도움을, 구매자에겐 질 좋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딸기 · 파프리카 재배하듯…

잎들깨 수경재배 '주목'

이어짓기 피해 없고 생산성 측면서 토양재배보다 유리

딸기나 파프리카 재배에서 볼 수 있었던 수경재배가 잎들깨에도 도입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잎들깨 수경재배'는 토양재배 시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어짓기로 인한 피해가 없고, 생산성 · 노동력 · 품질 등의 측면에서 토양재배보다 유리한 점이 많아 앞으로 잎들깨 재배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부성)은 고품질 잎들깨의 연중 안정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잎들깨 주산단지인 충남 금산지역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잎들깨 수경재배'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잎들깨 수경재배는 바닥에서 무릎 높이 정도에 폭 1m 내외의 작물재배용 스티로폼 베드를 설치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작물이 지탱하며 양 ·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배지(펄라이트 등)를 15~20㎝ 깊이로 넣고, 양 · 수분 공급을 위한 점적호스와 온 · 습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한다. 그 다음 비닐로 베드를 덮고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낸 뒤 여기에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뿌려 키운다.

이와 같은 잎들깨 수경재배는 토양재배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수경재배를 하면 토양재배 시 가장 큰 문제인 이어짓기(연작)로 인한 토양유래 병해충 발생 걱정이 거의 없다. 만약 병해충이 발생해도 해당 배지만 교체하면 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양 · 수분과 온 · 습도 등 재배환경을 센서를 이용해 정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생육이 균일하고 수확량이 20~30% 가량 많다. 잎들깨에 자주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 녹병, 노균병 등의 발생도 적다. 시간과 노동력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토양재배는 토양 관리를 비롯해 김매기 · 물주기 · 거름주기 등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수경재배는 이러한 농작업에 거의 시간과 노동력이 들지 않는다. 특히 토양재배 시 가장 힘들고 고된 작업이 잡초를 없애는 김매기인데, 수경재배는 김매기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초기 잎들깨 수확 시 토양재배는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해야하지만, 수경재배는 베드가 무릎 높이에 위치해 서서 수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덜하다.

지난해 수경재배기술을 도입한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박상영 농가는 10a 기준으로 잎들깨 수량이 6,971kg이 나와 토양재배 시 4,824kg보다 44.5% 가량 많았다. 농가소득도 5,402만원으로 토양재배 시 3,412만원보다 58.3% 가량 높았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백영목 국장은 "수경재배를 하면 고품질의 잎들깨 물량을 연중 안정적으로 대량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 잎들깨 수경재배 수출단지를 조성해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김정인 농업연구사는 "우리나라 잎들깨 재배면적은 1,000㏊로, 대부분 시설하우스나 노지에서 토양재배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잎들깨 수경재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배지선발, 재식거리 등 관련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켜 확립하고, 수경재배용 품종을 선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기안전공사-한전KDN 감사업무 교류 · 지원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함중걸)가 한전KDN(주)과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길을 나선다.

양 기관은 20일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KDN 본사에서 공사 함중걸 상임감사와 한전KDN 정성학 상임감사가 함께한 가운데 '감사업무 교류와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서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시책이나 사례들을 공유하고, 감사활동 시 전문인력 지원 등 감사부서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관별 자체 감사활동과 더불어 ESG(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할 실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함중걸 상임감사는 "청렴과 공정은 공공기관의 사명이자 존립 기반"이라며 "전력산업 유관기관 간의 감사업무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의 길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내일잡고 행복잡고 취업박람회' 성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21일 개최한 '2021 전북 내일 잡고 행복 잡고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한 현장면접 방식으로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도내기업 총 50개사가 참여했으며, 현장에는 약 2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에 취업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에 참가한 구직자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업체의 면접을 볼 수 있고, 면접관으로부터 관심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조언까지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사장은 채용관, 기업홍보관, 취업컨설팅관, 체험관로 구성됐으며, 채용관외 부대행사관에서는 이력서 · 자기소개서 및 이미지메이킹, 나만의 컵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 참여 기업들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구인활동을 진행했으며 기업들은 앞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추가 채용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호텔리조트투자 컨퍼런스 참가… 투자 요청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2021 한국호텔리조트투자 컨퍼런스'에 참가해 새만금의 핵심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양충모 청장은 "정부의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관광산업을 견인할 유망한 국내외 호텔리조트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행사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국제공항 등의 핵심 기반시설 조성 현황과 함께,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행사 첫날인 20일에 국제적인 리조트 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21일에는 사전 예약된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유호상 기자